

다수치 결손 환자에서의 자성 attachment를 이용한 보철적 수복증례

송진원*,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자석을 보철임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1950년대에 feritte 자석등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으나 크기와 흡입력, 내구성 및 내식성 문제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의 개발을 계기로 소형이면서도 흡입력이 큰 자성 attachment가 개발되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피개의치나 가철성 국소의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석유지장치는 장기간의 사용에도 유지력이 저하되지 않고 기공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자석의 흡입력을 이용한 근면 유지방식이기 때문에 착탈시 지대치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의치의 착탈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기타 기존의 각종 유지장치와의 병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자성 attachment는 넓은 적응증을 갖으며, 지대치의 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경우나 잔존 지대치가 한 개인 경우에서조차도 적절한 유지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자석을 이용한 다양한 증례를 G.C사에서 개발된 Magfit EX 600/400을 이용한 가철성 보철물로 수복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 보고하고자 한다.